

대구 북구,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개최

유재원 기자 jfirst5179@hanmail.net 입력 | 수정 2026.03.31 18:04

고교학점제 대비 대입 전략 안내로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사진=북구청 제공)

[경상매일신문=유재원기자]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지난 3월 28일(토)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부모 및 학생 120여 명을 대상으로 '20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대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강의는 전 부산 박만호 강사가 맡았다.

강의는 '고교학점제 대학입시, 걱정보다 기회로!'를 주제로, 진로과목 선택 전략, 수능 대비 방안,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등 학부모와 학생이 반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대입 전략 수립에서 기본 요소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북구 지역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립에 도움을 주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교육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는으로도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구 북구,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개최

고교학점제 대비 대입 전략 안내로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박용 기자(=대구) | 2026.03.31. 13:58:26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이 최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부모 및 학생 1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하고 있다.©북구청 제공

대구 북구청은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부모 및 학생 1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대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해 전 부산 학산여자고교 교장 박만호 강사의 ‘고교학점제 대학입시, 걱정보다 기회로!’를 주제로, 진로과목 선택 전략, 수능 대비 방안,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등 학부모와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입 전략 수립에서 기본 요소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북구 지역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진학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교육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클리오늘] “학교 밖에서도 배운다”... 북구, 청소년 주도형 교육 확대

✎ 박성원 기자 | ㉠ 승인 2026.03.31 17:45

고교학점제 대응 학부모 연수부터 청소년 운영단 발대식까지
학부모 대입 연수부터 마을운영단 발대식까지... ‘입시+공동체’ 교육정책 병행



▲대구 북구,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개최 / 대구 북구청 제공

[대구 위클리오늘=박성원 기자] 대구 북구가 학교 울타리를 넘어선 청소년 주도형 교육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입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학부모·학생 대상 진학 지원은 물론, 청소년이 마을 활동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까지 병행하며, 학교 안팎을 잇는 교육 생태계 조성에 나서는 모습이다.

북구청은 지난 2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부모와 학생 1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대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전 부산 학산여고 교장인 박만호 강사가 맡아 고교학점제 이해, 진로과목 선택 전략, 수능 대비 방안,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등 학부모와 학생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북구는 변화하는 입시 제도 속에서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북구의 교육 정책은 단순한 입시 정보 제공에만 머물지 않는다. 최근 북구 곳곳에서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마을운영단'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산격2동에서는 지난 27일 청소년마을운영단 '아이두(IDO)' 발대식이 열렸다. 아이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지역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조직으로, 우리마을 청소년 축제와 '사람책 도서관' 프로그램 등 지역 특색을 살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기존 구성원 13명에 신규 구성원 6명이 합류해 총 19명이 활동에 나선다.

북현2동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지난 28일 열린 청소년운영단 발대식에서는 중학생 10명으로 구성된 '드림메이커'와 초등학생 9명으로 구성된 '메이커스'가 출범했다. 특히 북현2동은 초등·중등 운영단을 분리해 연령대별 맞춤형 활동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꾀했다. 청소년들이 단순 참여자가 아닌 마을 활동의 기획자이자 운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암동 역시 청소년 참여형 교육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구암동 우리마을교육나눔 추진위원회는 지난 28일 청소년마을 운영단 '구암방위대' 발대식을 열고, 이후 인문학거리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청소년들이 지역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북구는 보다 어린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넓히고 있다. 북구청은 31일부터 관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을 운영한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맞춤형 환경교육으로, 그림교구와 젠가 등 놀이형 콘텐츠를 활용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북구는 한편으로는 입시 변화에 대응하는 실용 교육,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형 교육을 동시에 추진하며 교육정책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단순히 학교 수업이나 성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며 배움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업들이 발대식이나 체험 행사 수준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지속성과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청소년 운영단이 마을 정책에 어느 정도까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활동이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과제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 교육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 변화 속에서, 북구가 '학교 밖에서도 배우는 교육도시'를 지향하며 청소년 참여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흐름으로 읽힌다.

북구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마을 안에서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경험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원 기자 dgfact1@gmail.com

대구 북구,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실시

장시찬 기자 | 승인 2026.03.31 16:54



대구 북구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진행 모습. [대구 북구청]

[직설 / 장시찬 기자] 대구 북구청은 지난 28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부모 및 학생 12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대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전 부산 학산여자고등학교 교장 박만호 강사가 맡았으며 ‘고교학점제 대학입시 걱정보다 기회로’를 주제로 진로과목 선택 전략, 수능 대비 방안,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등 학부모와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대입 전략 수립에서 기본 요소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북구 지역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진학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줬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교육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시찬 기자 5088a@naver.com